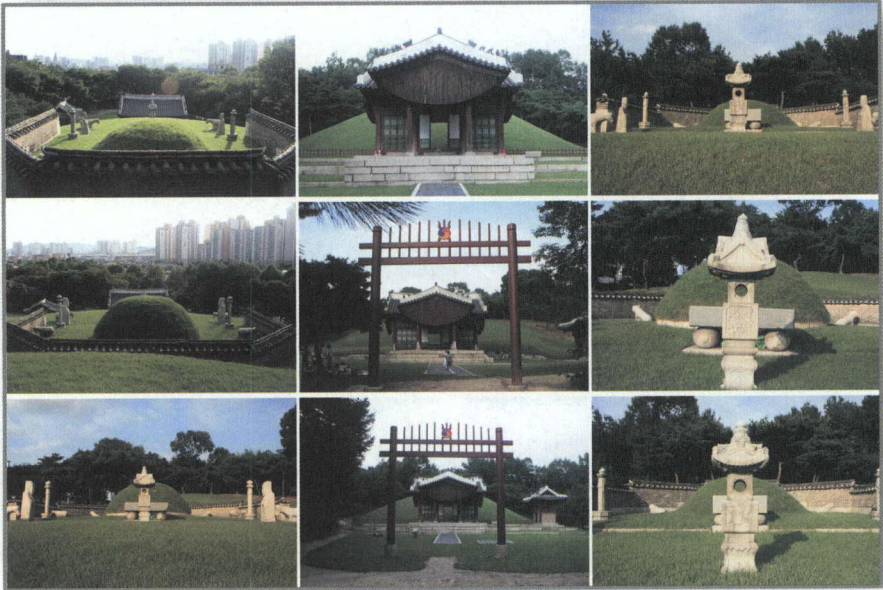


## 2. 원

### 서울특별시

---



## 영취원(永徽園)

### 1. 연혁

원 주 : 고종 후궁 순헌귀비(純獻貴妃) 엄씨[1854~1911]

위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지정번호 : 사적 제361호

봉원연대 : 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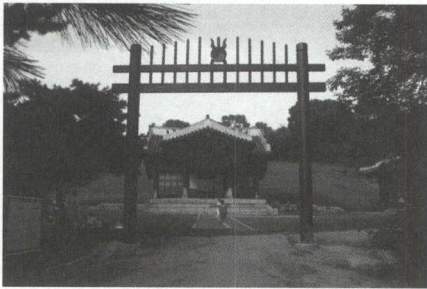
전원연대 :

원묘형태 : 단묘

### 2. 원묘 소개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홍릉수목원 방면으로 가다보면 영취원에 도착할 수 있다.

영취원은 조선 26대 고종(재위 1863~1907)의 후궁인 순헌귀비 엄씨(1854~1911)의 무덤으로 위패는 조선 역대왕이나 왕으로 추존된 이의 생모인 7명의 후궁을 모신 칠궁(七宮)에 모셨다. 엄귀비는 신교육에 관심이 많아 양



영취원 전경

영취원 안에는 영친왕의 아들 이진(李晋, 1921~1923)의 무덤인 송인원이 있다. 원래 이곳은 명성왕후를 모셨던 홍릉이 있었으나, 1919년 경기도 미곡시 고종황제의릉과 합장하기 위해 옮겼다.

묘역에는 홍살문·정자각과 ‘순헌엄비 영취원’이라 쓰인 비가 있는 비각(碑閣)이 있고, 병풍석 대신에 호석(護石)을 두른 무덤과 혼유석(魂遊石), 망주석(望柱石) 1쌍, 장명등(長明燈), 문인석(文人石) 2구, 마석(馬石)·호석(虎石)·양석(羊石)이 각기 2구씩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영취원과 송인원을 수호 관리하는 재실(齋室)이 있다.

정자각 남쪽에 있는 비문에는 엄비가 출생하여 이곳에 모셔지기까지의 과정을 “순헌귀비엄씨철종오년갑인십일월초오일생 기미선입궁광무원년 탄왕세자봉귀인사년봉순빈사궁호경선오년진봉비칠년책황비□□칠월이십일졸서수오십팔세추호순헌팔월이일장우양주천수산인좌원원호영취□□(純獻貴妃嚴氏哲宗五年甲寅十一月初五日生 己未選入宮光武元年誕王世子封貴人四年封諱嬪賜宮號慶善五年進封妃七年冊皇妃□□七月二十日卒逝壽



영취원 정자각

정의숙·진명여학교를 설립했고, 숙명여학교 설립시 많은 돈을 기부하는 등 근대 사립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영취원 안에는 영친왕의 아들 이진(李晋, 1921~1923)의 무덤인 송인원이 있다. 원래 이곳은 명성왕후를

五十八歲追號純獻八月二日葬于楊州天秀山寅坐原園號永徽□□”라고 기록되어 있다.

### 3. 원주 소개



영취원 비각

고종황제의 계비(繼妃)인 순헌  
귀비 엄씨(純獻貴妃 嚴氏)(1854~  
1911)는 철종 5년(1854) 11월 증찬  
정(贈贊政) 엄진삼(嚴鎭三)의 장  
녀로 태어나 8세에 경복궁에 들어  
가 명성황후(明成皇后) 민씨의 시  
위상궁(侍衛尙宮)이 되었다가, 을  
미사변(乙未事變)으로 명성황후

가 시해된 후 아관파천(俄館播遷)때 고종을 모시며 후궁(後宮)이 되어 광무  
(光武) 원년(1897) 영친왕(英親王) 이은(李垕)을 출산하였다. 이 때 귀인(貴  
人)에 봉해졌고, 광무 5년(1901) 비  
(妃)에 진봉되고, 광무 7년(1903)에  
는 황비(皇妃)에 책봉되었다. 1911  
년 7월 20일 58세로 별세하여, 순  
헌(純獻)이라 시호를 올리고, 8월  
에 양주 천수산(天秀山)에 무덤을  
만들고, 원호는 영취라 하였다. 위  
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뒤에서 바라본 영취원



영취원 근경



영취원 장명등과 봉분

에 있는 칠궁(七宮, 德安宮)에 봉안되어 있다.

엄귀비는 신교육에 관심이 많아, 광무 9년(1905) 양정의숙(養正義塾), 광무10년(1906) 진명여학교(進明女學校)를 설립하였으며, 명신여학교(明新女學校, 현 숙명여학교)의 설립에도 거액을 기부하는 등 근대교육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한편 엄귀비는 광무 5년 꿈에 나타나 집을 지어달라고 간청한 7구의 석불(보물 제985호, 청주 용화사 석불상)을 위하여 1902년에 용화사를 세웠다고도 전하여 진다.

#### 4. 영취원표석음기

##### 純獻貴妃永徽園

純獻貴妃嚴氏 哲宗五年甲寅十一月初五日生 己未選入宮 光武元年誕生王世子 封貴人 四年封諄嬪賜宮號慶善 五年進封妃 七年冊皇妃 〼〼七月二十日卒逝 壽五十八歲 追號純獻 八月二日葬于楊州天秀山寅坐原 園號永徽〼〼

## 숭인원(崇仁園)

### 1. 연혁

원 주 : 영친왕 장자 이진(李晉)

위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지정번호 : 사적 제361호

봉원연대 : 1923년

전원연대 :

원묘형태 : 단묘

### 2. 왕릉 소개

서울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홍릉수목원 방면으로 가다보면 영취원에 도착할 수 있다.

숭인원은 고종황제의 넷째 아들인 의민황태자의 장자인 이진(李晉)의 묘이다. 이진(1921~1922)은 일본에서 태어나 의민황태자 내외가 귀국하였을 때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순종황제의 명에 의해 이곳에 묻히게 되었다.



송인원 정자각



송인원 전경

이곳에는 고종의 비인 명성황후 민씨(明成皇后閔氏)의 능인 홍릉(洪陵)이 있었다. 1919년 고종이 죽었을 때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금곡리(현 남양주시 금곡동)로 천장(遷葬: 묘를 옮김.)되었다. 이런 연유로 이곳은 ‘홍릉’이라 불리고 있다.

묘역시설로는 곡장(曲牆)·상설(象設, 石虎·石馬)·혼유석(魂遊石)·장명등(長明燈)·망주석(望柱石)·문인석(文人石)·무인석(武人石)·석마(石馬)·홍살문(紅箭門)·정자각(丁字閣)·비각(碑閣)·제실(祭室)·우물[靈泉]·사초지(莎草地: 오래 되거나 허물어진 곳을 때로 잘 입혀 다듬은 곳)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



송인원 비석

담장 밖 북쪽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관(世宗大王紀念事業會館)이 있으며, 구영릉(舊英陵, 서울 서초구 내곡동 현인릉)에서 수습해온 신도비(神道碑)와 능호석(陵護石) 등이 전시되어 있다.

### 3. 원주 소개

조선조 말, 대한제국의 급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헤이그 밀사 사건이 있자 일제는 재발을 방지한다는 구실로 황태자(李垕)를 일본으로 볼모로 데려간다. 당시 고종황제의 뒤를 이은 순종황제는 후손이 없어 이은을 황태자로 삼으니, 그가 바로 의민황태자(영왕)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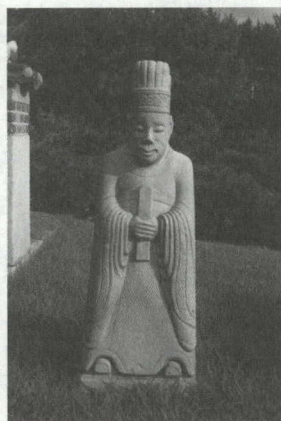
송인원 장명등과 봉분



송인원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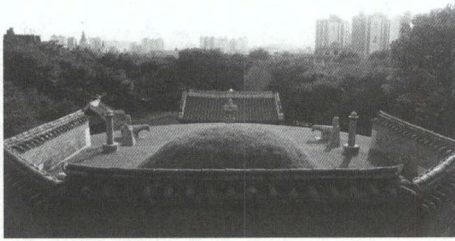
영왕은 결국 일본에서 일황실의 마사꼬(方子)와 정략결혼을 하게 된다. 영왕은 그때 이미 결혼을 하기로 한 민가방 여사가 조국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대한제국 황실의 절손을 목적으로 일황실안에서 애기를 못낳는 불임 여자를 골라 결혼시킨 것이 바로 마사꼬 여사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황손이 태어났으니 바로 진(晉)이었다. 1922년 4월, 영왕은 진의 백부인 순종황제에게 결혼 보고 겸 모국 나들이로 진과 함께 일시 귀국, 같은해 5월 8일 일본으로 돌아갈 때



송인원 문인석





뒤에서 바라 본 송인원 전경

정이었다. 그러나 출국 하루전인 5월 11일 새벽, 진이 의문의 죽임을 당하게 된다.

부모나 형보다 일찍 죽으면 효도가 아니어서 장례를 치를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관습이었다. 그러나 순종황제는 억울하게 죽은

어린 진의 죽음을 애석히 여겨 특별히 장례를 치르도록 명하고, 조모(엄귀비)곁에 묻히도록 하니 바로 이곳이 송인원이다.

#### 4. 송인원표석음기

元孫崇仁園